

유가 전망 및 미국 셰일오일 수출 가능성 (PIRA World Oil Market Forecast)

2014. 10. 07
두바이사무소

1 유가 현황 및 전망

- 수요 대비 과도한 원유 공급 불균형으로 인해 하방 압력이 지속되어 유가 하락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*
 - * 「World Oil Market Forecast」(14. 9. 22, PIRA(76년 설립된 국제유가 분석社))
 - '15년에 브렌트유 U\$92, WTI는 U\$84선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함
- 지난 9월 27일 공표된 미국의 2분기 GDP증가율이 4.6%로 '1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미국 경제 회복세는 유가에 긍정적인 영향
 - 그러나, 미국 셰일오일의 초과 공급으로 인해 브렌트유는 중기적으로 U\$100을 하회하는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
- 사우디아라비아가 '15년 생산량을 55만 B/D감산하여 총 925만 B/D 수준으로 조절하는 등 유가방어 정책을 펴고 있으나,
 - 전세계 원유 재고가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,
 - 이란·이라크·리비아의 악화되고 있는 경제 사정으로 인해 생산량 증대를 원하고 있는 실정이며,
 - 베네주엘라나 나이지리아 등 기타 OPEC 국가도 재정 수입 감소에 반대하여 OPEC의 단합된 감산 움직임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실정

- 그리고 '15년 미 셰일오일 수출이 가시화되면 브렌트유와 WTI는 U\$90~95박스권에서 상당 기간 정체될 것으로 예상됨

2 미국 셰일오일 수출 가능성 및 영향

- 올해 11월 4일에 있을 미국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 미국 셰일오일의 수출자유화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음
 - 공화당 뿐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의 민주당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도 지난 9일 '변화하는 시장-원유수출 금지의 경제적 이득' 보고서를 발간하여 원유 금수 조치를 전면적이며 즉각적으로 해제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함
 - 미국 내에서는 셰일오일을 정제할 설비가 점차 부족*해지고 있으며, 미국 원유 재고도 현재 사상 최대 수준(10.5~11억 배럴)
 - * 9월 현재 가동률 93%/70년대 중반 이후 미국 내 설비 신증설 없었음
 - 미국의 정유 시설은 미국 내수용으로 설계되어 API* 30~40의 원유에 맞게 최적화되어 있으나, 셰일 오일은 대부분 API 40이 넘는 경질유임
 - * 미국석유협회(American Petroleum Institute)에서 정한 석유비중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경질유이고, 낮으면 중질유로 분류됨
- ⇒ 결국, 미국에서 생산되는 셰일오일의 수출압력이 높아지고 있음
- 미국 셰일오일 수출이 자유화될 경우, 미국 석유 수출로 셰일 오일 가격은 올라가고 전반적인 국제 유가는 미국의 셰일오일 유입으로 더욱 하락하게됨

- 미국 휘발유 가격 역시 국제 유가와 동반해서 하락될 것으로 전망되어, 미국 정유 업체들의 원재료 가격은 올라가고 제품 가격은 하락하여 현재와 같은 큰 폭의 영업이익은 향유할 수 없게 됨.
- 반면 우리나라 정유 업체와 같은 非미국계 정유 기업은 미국 석유 수출 자율화 조치로 '11년 수준으로 정제 마진이 회복된다면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
- 정제마진 U\$3/bbl(배럴)이 개선되면, SK는 1조원, GS는 8,000억원의 영업이익 개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됨